

Wendy L. Widder 박사, 다니엘, 세션 3, 다니엘서의 구조

© 2024 Wendy Widder 및 Ted Hildebrandt

다니엘서에 대해 가르치는 Dr. Wendy Widder입니다. 이것은 세션 3, 다니엘서의 구조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다니엘서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다니엘서 1장을 공부하기 전에, 이 책의 큰 구조인 거시적 구조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서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첫 번째 것은 장르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 있습니다. 이것들은 서사적인 이야기이고, 이것은 종말론적 예언이므로 두 가지 서로 다른 장르입니다. 책의 절반은 하나이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책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지만 몇 가지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추가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사적 이야기는 제3자의 입장에서 전달되며, 그것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재미를 의미합니다. 분명히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재미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법정 이야기 또는 법정 이야기로 분류됩니다. 몇 가지 논평을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이야기는 다른 고대 근동 문학에서 알려진 장르로, 외국 땅에 살고 있으며 종종 외국 법정에서 봉사하는 포로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나라 왕의 신하이자 신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포로들이 억압받는 사람들이고 나쁜 삶을 살고 있지만 어려움에 직면하고 실제로 그 나라의 원주민보다 우월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작은 규모의 예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첫째, 그는 감옥에 갇혔거나 포로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파라오의 궁정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과 42장에는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 불안해하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전문가들은 그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한 명이 기억합니다. 아, 잠깐만요. 저는 이 사람을 알아요. 감옥에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꿈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외국인 포로인 요셉을 법정으로 데려왔고, 그는 왕의 신하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법정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법정에서 이 외국인 포로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에스더서에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더는 기술적으로 노예는 아닙니다. 아마도 그녀를 둘러싼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지만 그녀는 크세르크세스나 아하수에로의 궁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상에 오른다. 법원 이야기의 맛은 다르지만 생각은 같습니다.

다니엘서의 첫 여섯 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난해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이야기가 연이어 나오며, 그의 전문가들은 그를 돕는 데 전혀 무능함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외국 포로 다니엘이 옵니다. 그는 왕의 전문가들보다 더 빛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법정 이야기는 실제로 두 가지 다른 맛으로 나옵니다.

법정 갈등도 있고, 법정 다툼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싸움은 다니엘 2장과 다니엘 4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두 장 모두에서 느부갓네살은 괴로운 꿈을 꾸고 그의 전문가들은 그 꿈을 설명할 수 없지만 다니엘이 나타나서 상황을 구합니다. 그러니 마치 왕의 일반 참모들과 이 외국인 포로 사이의 경쟁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포로가 맨 위에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려온 낮은 지위의 영웅이고, 그는 성공한다. 법정 갈등에는 어떤 이유로든 위협, 위험, 심지어 죽음에 직면한 외국인 포로인 영웅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이것이 다니엘 3장과 6장에 나옵니다. 다니엘 3장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그들이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들에 대해 말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왕의 전문가들이나 왕의 다른 신하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과 포로들 사이의 실제적인 갈등인데, 그런데도 포로가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인데, 비슷한 상황이다. 다니엘은 정말 동료들에 의해 음모를 꾸미고 함정에 빠지게 되었고, 그 때문에 결국 사자 굴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포로가 풀려나고 승진하든 뭐든 간에요.

따라서 이것은 알려진 장르이며 다니엘서의 이 장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비록 고대 근동 이야기의 일부와는 약간 다른 비틀림이 있지만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음, 그들은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즐겁게 지내십시오.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잠시 후, 여러분이 듣기만 하면 되는 내용 중 하나를 큰 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들어야합니다.

그것은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즐겁게 하기 위해 쓰여졌고, 반드시 왕실이나 그 국적의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웅의 국적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재미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억압받고 있는지 알지만, 보세요, 그들은 정상에 올라갑니다.

따라서 정복된 종족 집단의 민족적 자부심을 즐겁게 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일종의 영웅을 통해 대리 생활을 하고 영웅이 성공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역경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유덕한 사람들의 모범을 따르도록 격려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다니엘이 있고, 여기 사드락, 메삭, 베네갈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특히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나 유배 생활 방법에 대한 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이러한 이야기가 디아스포라의 생활 방식에 관한 기사입니다. 구글에 검색해보면 리 험프리스(Lee Humphreys)가 쓴 글인데, 그는 성경에 나오는 법정 이야기가 디아스포라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신실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또한 아마도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포로들이 이런 이야기를 보고 있고, 여러분은 자신의 동족이 외국 법정에서 복무하고 실제로 돕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처럼 그녀는 동족과 외국인을 돕고 있습니다. 포로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들이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여기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조국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목적이 있고, 장소가 있으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이 이야기들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의도한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특히 다니엘서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성경의 어떤 이야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 주며, 실제로 성경 인물인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적습니다. 예, 그들은 거기에 있고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의 초점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열방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의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월하시며, 어디에 있던 그분의 종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확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며, 심지어 당신이 섬기는 외국 왕들까지도 통제하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단언합니다. 그는 그것들을 그의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전반부의 장르를 살펴보고, 책의 후반부의 장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언은 묵시적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6개의 장이지만 4개의 환상입니다. 다니엘은 네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7장에는 환상이 있고, 8장, 9장, 그리고 10장부터 12장은 실제로 하나의 단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여섯 장에 걸쳐 네 가지 별도의 환상과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의 특징 중 하나는 상징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시문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측면 중 하나는 아마도 상징주의일 것입니다. 돌연변이 특징을 가진 동물도 있고, 이상한 동물도 있고,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생물도 있고, 서로 돌진하고 짓밟는 동물도 있는데, 우리는 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셨다면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징주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히 이 두 가지는 상징성이 무겁습니다. 이 둘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종말론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상징적인 환상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깨달음에 더 가깝습니다. 어니스트 루카스는 그것을 깨달음의 계시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에 있는 것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적어도 여기서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약간 다르지만 여전히 모두 묵시적인 문학으로 간주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묵시적인 장르는 제2성전 시대에 잘 알려져 있다.

그것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기간 동안 꽃이 피고 피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억압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격변적인 개입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발전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상황은 너무 나빴기 때문에 깨끗이 닦아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이 장들을 묵시적인 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들을 예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예언적 종말론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손가락질하거나 손을 대는 것이 조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종말론적이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만큼 완전히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원시 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언, 그렇죠.

당신만의 라벨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학자들은 사물에 대한 새로운 명칭을 생각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책의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장르별로 책에 접근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냥 가운데로 나누면 됩니다.

당신은 법정 이야기를 연구합니다. 당신은 묵시적인 장과 그 장들의 공통점을 연구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책을 읽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장르를 이해하고 그것이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에 접근하는 두 번째 방법은 낱자 공식이나 연대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공식이 올바른 단어인 것 같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날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꺼내고 나서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사실 이것은 타임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기원전 605년이고, 이것이 다니엘서 1장 1절에 언급된 날짜입니다. 기원전 605년은 유다 왕 여호야קים 통치한지 3년이 되는 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결국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605년에 이 사건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음 날짜는 다음 장인 다니엘 2장 1절에 나오며, 그것은 느부갓네살 통치 제2년이며, 우리는 그 해를 604-603년경으로 정할 것입니다. 다음 날짜는 다니엘 7장 1절입니다. 글썬요,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7:1은 벨사살 원년 곧 벨사살 553년경이다.

그런 다음 다니엘 8장 1절에서 연대를 알 수 있는데, 그 연대는 벨사살 제3년으로 기원전 551년경이다. 여기로 오세요. 연대순으로 보면 키루스의 첫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다니엘 1장 21절에 나오는데 다니엘이 BC 539년으로 알려진 고레스 원년까지 외국 법원인 바빌로니아 법원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날짜를 볼 수 있도록 상자에 넣어 두겠습니다. 사자 굴 이야기의 끝인 다니엘 6장 28절에서는 이야기 부분의 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으로 가면 묵시적인 문학에 이르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시대에 번영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다리우스와 키루스의 통치. 이는 거의 동일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9장 1절에는 다리우스 원년에 대한 언급이 또 있습니다. 10장 1절에는 고레스 제3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모두 대략 539개입니다.

이것은 537입니다. 주고 받거나 하세요. 내 생각엔, 아, 그리고 11장 1절에도 다리우스 원년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이 있습니다. 좋아, 이 난장판을 어떻게 하겠니? 글썬요, 제 생각에는 제1장에서 이 두 날짜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에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장의 끝에서 서술자는 다니엘이 그곳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적어도 얼마나 오랫동안 왕실에서 봉사했는지 알려줍니다. 따라서 1장의 이 두 날짜는 우리에게 다니엘서의 틀, 즉 다니엘의 봉사, 연대순의 틀, 다니엘의 봉사의 틀, 그리고 이 책의 틀을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확장되지만 대략적으로 말하면 1장은 우리를 위해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2장의 시작부터 바로 여기에 있는 6장의 끝까지 우리는 실제로 법정 이야기의 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궁중 이야기는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신상 꿈으로 시작하여 3장, 4장, 5장, 6장으로 이어집니다.

그거 다 법정 이야기야. 7장과 8장은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인 환상이다. 이것이 바로 짐승들의 환상이다.

그래서 그는 네 마리의 짐승과 두 마리의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환상 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여기에서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전입니다. 이것이 70이레와 북방 왕과 남방 왕들의 환상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는 일은 이 책의 연대기 관점에서 여러분이 관점을 얻는 데 일종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사적인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서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은 실제로 뒤로 물러납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거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연대기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비전은 이러한 법정 이야기가 발생하는 동안 설정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식적으로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당신은 그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오, 벨사살, 음, 그는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비전 세트입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법정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1~2년 후 미래로 흘러갈 때 나옵니다.

연대순으로 챕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이자 책을 해석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언어, 특히 언어에 의해 형성되는 구조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르에 따라 구조화할 수 있고, 이 연대기에 따라 구조화할 수 있으며, 이제 언어에 따라 구조화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두 가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한 것을 기억하세요. 이 책은 한 장 전체를 히브리어로 시작한 다음 네 절을 지나 아람어로 옮겨갔다가 다시 히브리어로 8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람어는 히브리어의 자매언어 또는 사촌언어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추방 이후 동일한 알파벳과 동일한 문자를 공유합니다. 자, 구약성서에는 아람어를 조금 엿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창세기와 예레미야서에는 아람어가 들어 있는 고립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에스라서에는 페르시아 관리들과 페르시아 행정부, 그리고 그 땅에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 쓴 서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오늘날의 링구아 프랑카인 상업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아람어를 이상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람어는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언어입니다. 여전히 약간의 변형된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기원전 9세기에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언어는 변합니다. 따라서 이 언어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과 변화, 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사용된 방언은 대개 제국 아람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다니엘 시대의 고대 근동 세계의 지배적인 언어, 즉 링구아 프랑카였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람어가 오랫동안 존재했고 많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을 방금 들었는데 궁금해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아람어가 다니엘서의 연대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6세기 아람어 대 2세기 아람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대답이고 이것이 일반적인 합의입니다.

아니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아람어는 제국 아람어이고 그 날짜는 700년에서 200년까지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아람어의 여섯 장을 갖게 된 가능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유대인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몇 그룹의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망명 중인 유대인들은 아마도 우리 나라의 이민자 공동체가 자신들의 언어, 특히 1세대를 살려두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가정에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가능한 한 오랫동안 히브리어를 살려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활발한 이민에서 멀어질수록 언어는 더욱 희석되고 결국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포로생활 중인 유대인들이 한동안 히브리어를 사용했지만 아람어를 배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잘 지내야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유배되지 않은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아마도 가능한 한 오랫동안 히브리어를 살려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종류의 정부나 공식 문서에도 아람어를 사용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와 포로 생활 이후의 에스라의 책을 보면 흥미로울 것입니다. 에스라는 서기관이었고 그는 히브리어 토라를 사람들에게 읽어 주었지만 그것은 해석되어야 했습니다. 번역되었습니다. 우리는 포로된 이후의 사람들이 여전히 토라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언어를 갖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언어는 서로 다른 커뮤니티에서 나란히 작동하지만 다니엘에서는 왜 나란히 작동합니까? 글썄,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론을 제시한 다음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되는 이론에 집중하겠습니다.

아람어의 이 장은... 좋아요, 그럼 우리는 히브리어 1장부터 2장, 4절을 얻었고, 아람어는 2장부터 7장, 그리고 다시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7장을 제외하고 외국 법정에 갇힌 유대인 포로들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이론은 이 이야기가 바빌로니아 왕과 심지어 페르시아 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아마도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빌로니아인과 페르시아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이야기는 유대인에 관한 것이 더 많습니다. 당신이 페르시아인이거나 바빌로니아인이라면 아마도 유대인 포로들이 당신의 힘보다 뛰어나다는 이야기에 크게 흥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이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국가 신들의 열등함을 보여주기 위해 쓰여진 이야기들은 아마 그 문화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이론은 다니엘서 전체가 아람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은 모두 아람어로 기록되었고, 어느 시점에 히브리어 장은 이 책이 정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람어에서 히브리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글쎄, 정경에 포함되려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좋아, 내가 그걸 인정한다면 왜 2장부터 7장까지 무작위로 선택하는 걸까? 바로 아람어입니다. 책 전체를 읽어보면 어떨까요? 모르겠습니다.

아주 빈틈없는 이론은 아닙니다. 세 번째 이론은 아람어가 아람어를 사용하는 장소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에 진정성을 부여하는 문학적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이 주장은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바뀔 때 칼데아인들이 왕에게 아람어로 대답했다고 본문이 말하고, 그런 다음 아람어로 바뀐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일부 번역에는 아람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필사자 메모일 뿐이고, 이봐, 안녕하세요, 언어가 여기에서 바뀌었음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세요. 그것은 이론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단, 대화가 일부 있지만 직접적인 대화가 아닌 경우 왜 6장 동안 아람어로 유지됩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람어가 문학적 장치라고 생각하지만 진정성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 여섯 장, 즉 아람어 장들이 실제로 해석의 열쇠로서 기능하거나 책의 나머지 부분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이 문학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8부터 12까지를 의미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이 6개의 장은 실제로 매우 멋진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괜찮은. 그래서 2장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람어 장들입니다.

우리는 웅장한 금속 신상에 대한 꿈을 꾸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이 꿈은 인간 네 나라가 결국 멸망하고 넘어져 하늘나라, 영원히 존속할 다섯 번째 나라에 관한 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네 개의 왕국과 다섯 번째 영원한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동상꿈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3장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느부갓네살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워지거나 비난을 받아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하셨고,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그들이 죽음에 직면한 것도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좋아요. 4장은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꿈입니다. 이 꿈에서 그는 이 멋진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땅을 가득 채우고 주변의 모든 것을 먹이며 그늘을 제공합니다.

바로 이 멋진 나무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감시자, 이 천사는 그것을 자르고, 그 잎사귀를 흩어뜨리고, 파괴하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아 하나님께서 네 교만함을 인하여 너를 심판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신의 권위, 즉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교만한 인간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만한 왕이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소서.

5장에서는 새로운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벨사살인데 벨사살이 벽에 쓴 글씨를 보고 이 글자를 깨닫지 못하며 전문가도 그를 도울 수 없으니 다니엘이 해석하러 온다. 다니엘은 벨사살아, 네가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는 교만한 왕이었고 그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6장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자 굴에 들어간 이유는 그가 그의 하나님께 신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로 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실함 때문에 죽음에 직면했으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실했기 때문에 죽음에서 구출되었습니다. 7장, 이것이 우리의 변화임을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는 종말론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소란스러운 바다에서 네 마리의 돌연변이 짐승이 솟아오르는 환상을 보는데, 그들은 결국 멸망하고 심판을 받으며, 이 꿈에서 다섯 번째 영원한 왕국이 나옵니다.

좋아요, 아마도 유사점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진행되는 일종의 병렬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렇죠? 이건 내 장학금이 아니야.

어떤 논평이라도 이 조직에 대해 알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뭔가요?
이것은 학자들이 말하는 방식에 따라 교차(chiasm) 또는 교차(chiasm)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Merriam-Webster는 둘 다 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교차파 또는 교차파 구조는 그리스 문자 chi에서 유래합니다. x 종류는 그
자체로 접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것을 들여쓰기했다면 여기가 2장, 저기가
2장, 아니면 7장이 같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3장, 6장은 같은 수준입니다. 4장, 5장. 자, 이것이 우리가 그들의 공통점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교차가 오는 곳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접혀집니다. 고대 문헌의 어느 누구도 이것을 왜 사용했는지에
대한 일종의 이유를 남기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런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보지만 어떤 곳에서는 그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이걸 꽤 분명해요. 그리고 그들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교차 구조의 목적 중 하나가 중간에 있는 것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점은 무엇입니까?
중심점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교차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교만한 인간 왕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왕권, 특히 궁극적으로 권위를
갖게 되는 신성한 왕권과 인간 왕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 길에 초점을 맞추거나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유일하고 영원한 나라이며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모든 것이 어떤 모습이든, 상황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시며 자신의 영원한 왕국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교만한 인간 왕들에 관한 이 두 장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또한 이 두 장을 생각해 보면 흥미로운 점은 왕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 다르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의 교만으로 인해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4장에는 그가 잠시 회개한 다음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간의 암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다니엘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영원한 나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과 그의 왕국의 위대함에 대한 놀라운 진술을 한 후 무대를 떠납니다.

이 사람은 당시 가장 위대한 왕인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판단을 받았지만 그의 반응은 옳습니다. 벨사살아, 나는 5장을 좋아한다. 우리는 5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벨사살은 그의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에게는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즉시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내러티브는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벨사살은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본을 따라야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 인간 왕권, 인간 왕의 관계, 특히 이방인 인간 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왕들. 이들은 다윗 왕조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게 된 다른 나라의 왕들이요, 솔직히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곳이겠지요? 우리는 말하자면 외국의 왕들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차점은 인간 왕이 하나님께 마땅히 가져야 할 적절한 반응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지만 책임도 따릅니다. 좋아요, 그럼 이 내부 부분은 교만한 인간 왕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두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두 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대한 우주적 관점과 전체적인 교차점을 설정합니다. 우리는 각각 4개의 인간 왕국을 보고 있지만, 전체는 4개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다섯 번째 영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적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보좌에만 국한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왕과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의 왕국만이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주적 관점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개별 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우주적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두 장은 어떻습니까? 글썄요, 하나님의 백성은 좋은 나쁜 외국 왕들의 통치 아래 살면서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과 정부들 중 일부는 적대적일 것입니다.

인생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실제로 다리우스와 정말 잘 지냅니다.

다리우스 왕은 결국 사형을 선고받게 되자 망연자실합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는 심지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기 전에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같지만, 그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는 그의 법에 묶여 있습니다. 3장에서 느부갓네살은 성난 미치광이입니다. 그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얻었고, 그러다가 그를 불 속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당신은 적대적인 인간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알다시피, 나는 적대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타국 땅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신실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들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랬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왕이 어떤 종류인지에 관계없이 충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체적인 교차 구조, 이 이야기들, 그리고 이 묵시적인 장과 함께 이 책의 장엄한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며, 제 생각에 우리가 8장에서 12장에 도달할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장대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1장에서는 1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1장은 책의 프롤로그와 같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등장인물, 일부 주요 주제, 그리고 거기에 있을 일부 갈등이 소개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책의 프롤로그 소개입니다.

2장은 묵시적인 이야기의 혼란스러운 구조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런 다음 8장에서 12장에 이르면 이 이야기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와 환상은 모두 포로의 땅 바빌론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지리를 바빌론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8장부터 12장까지에서 다니엘은 아직 바벨론에 있지만 그 땅에서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므로 지리가 바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바벨론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팔레스타인에서의 삶을 묘사하며, 끔찍한 삶을 묘사합니다. 이 환상 속에서 삶은 정말 힘들어요.

이것은 묵시적인 문학, 삶이 너무도 나쁜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학입니다.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깨끗이 닦아내고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억압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을 이겨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글썄요, 부분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이 교차점이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땅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인간의 왕국은 모두 멸망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억압하고 있는 그 인간 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에 직면하더라도 신실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교만한 인간 왕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차 구조가 바빌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아람어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외국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히브리어가 그들의 모국어입니다. 바빌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예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이 혼란스러운 구조에서 우리는 그들을 다시 땅의 삶으로 데려가는 근본적인 진리를 얻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교차교차에 대한 나의 견해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읽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나에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아람어이거나 서로 붙어 있거나 모두 번역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는 내가 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는 의도적인 구조입니다. 이걸 잡동사니가 아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왜요? 답이 없을 수도 있지만 책 전체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개 자료를 마쳤고, 다음 강의 때 다니엘서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Wendy Widdler입니다. 이것은 세션 3, 다니엘서의 구조입니다.